

삼성BP화학, 생산성 대상 3관왕

종합대상은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 도레이새한은 에너지혁신대상

삼성BP화학이 2005년 대한민국 생산성대상에서 흡족한 결과를 거두었다.

삼성BP화학은 보전경영과 설비혁신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동시에 안복현 대표이사가 개인부문에서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삼성BP화학은 국내 유일의 초산(Acetic Acid) 및 VAM(Vinyl Acetate Monomer) 생산라인을 갖춘 가운데, 공장가동 100% 달성을 위한 설비예방 및 보전업무 계획을 주간별, 월별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또 IMMS(Integrat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를 통해 하자(Loss) 및 비계획 가동정지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은 종합대상을 차지해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삼성전자 시스템가전사업 부는 에너지효율 특별상을 수상했다.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은 인재(Person), 제품(Product), 공정(Process)의 3P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3P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이루는 아이디어경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온라인상에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iZI 시스템과 학습조직관리지원 시스템 CoP(Community of Practice)를 활용해 전직원들의 학습과 제안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도레이새한은 에너지혁신 부문대상을 수상했다. 도레이새한은 청정연료사용 및 공장의 최적 에너지 사용관리 시스템인 DSC(Distributed Control System), OIS(Operator Information System) 등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제18회 대한민국 생산성대상 수상내역(2005)

구 분	응모분야	회사명	훈 격
부문대상	생산혁신	LG이노텍(혜주)유한공사	대 상
	보전경영	삼성BP화학	대 상
	설비혁신	삼성BP화학	대 상
	에너지혁신	도레이새한	대 상
특별상	에너지효율	삼성전자 시스템가전	최우수상
	기술혁신	한성식품	최우수상
개 인	최고경영자상	삼성BP화학 안복현 대표	
종합대상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명예의 전당

자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편, 대한민국 생산성대상은 한국능률협회 생산성위원회(위원장 안복현)가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회장 송인상)이 주관한다. 2005년 대한민국 생산성 컨퍼런스와 시상식은 6월28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김건우 기자>

<화학저널 2005/06/30>